



이선빈(맨 오른쪽)이 인천 서구의 한 독거노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미술수업을 담당하는 송윤경(왼쪽에서 두 번째)씨 등 자원봉사자들과 짧은 시간의 인연을 사진으로 남겼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할머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벗이죠”

독거노인 시설서 3년째 미술수업…송윤경 씨가 말하는 봉사의 의미

근처에 올 일 있을 때마다 얼굴 비취 이젠 그림에 대해 서슴없이 지적도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힘을 바쳐 애쓰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말이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라는 강박관념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분명 좋은 일인 건 알지만, 많은 이들이 시작에 앞서 주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일 연기자 이선빈과 함께 인천 서구의 한 독거노인 시설에서 미술수업 봉사활동을 펼친 송윤경(40)씨. 올해로 3년째 활동하고 있는 그는 “사실 (내)집은 ‘개판’ 5분 전”이라며 웃으면서도

“정해진 날짜에 (이 곳에)다녀오지 않으면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한다.

송씨는 2014년 지인의 소개로 이 곳 10여명의 독거노인 할머니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개인적으로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매주 월요일마다 할머니들과 미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씨는 이날 일일교사로 참여한 이선빈에게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경계심을 보일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 역시 오랫동안 이들과 시간을 함께 공유한 끝에 허물없는 관계가 됐다.

이젠 수업 내내 송씨는 할머니들과 스스럼없이 장난치면서도 이들의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리거나 제대로 그리지 못할 때에는 서슴없이 ‘지적’을

하는 사이가 됐다. 그는 “할머니들이 연필을 쥐거나 붓에 힘을 넣는 손법이 강해졌다”며 “예전에는 의존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원하는 물감 색깔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그를 할머니들은 “친손녀”로 대해준다. 송씨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할머니들은 다른 할머니와 다했던 일 등 그간의 이야기를 쏟아낸다. 두 할머니를 화해시키는 “중재 역할”도 송씨의 임무다.

“제 자신과 한 ‘일주일’에 한 번 방문’ 약속은 지키려고 한다. 제가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림이니 이를 통해 이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일 뿐인데, 드리는 것보다 얻는 게 너무 많다.”

송씨는 “할머니들이 저에게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실까요”라며 겸손함을 드러냈지만, 할머니들은 다음주를 약속하고 떠나는 송씨의 손에 당산들이 텃밭에서 가꾼 고구마 등 매주 무언가를 가득 담아 쥐어 보낸다.

이제 이 나눔의 활동이 생활의 일부가 된 송씨는 처음 방문해서도 능숙하게 할머니들과 지내는 이선빈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기회를 마련해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이선빈의 말에 그는 “할머니들에게는 말벗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귀띔했다.

“정해진 날짜 외에 근처에 올 일이 있으면 수시로 들락거리며 얼굴을 비춘다. 행위로서 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으로 교감하는 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떠나기 아쉬운 이선빈 “꼭 다시 올게요”

“개인적으로 꼭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1일 일일 봉사활동에 나섰던 연기자 이선빈(22)은 그러기엔 오전에만 참여한 것이 죄송스럽고 아쉬웠다. 그래도 짧은 시간 할머니들과 금세 정이 들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시설을 나오기 직전 할머니들의 방을 일일이 찾아 건 강을 당부하며 손을 한 번 더 잡았다.

“불쑥 찾아와 민폐만 끼치고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 오랫동안 할머니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말이 봉사활동이지,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없는 것 같아 창피하기만 해요.”

이선빈은 시설을 나와서도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미술수업 때는 봉사활동 선생님의 일손을 거두고, 이후에 할머니들의 점심 배식을 도왔지만 설거지 등 뒷정리까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다. 자원봉사자들의 “할머니들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말을 듣고서야 긴장을 풀며 “따로 시간을 내서 매니저 오빠와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시설의 총책임자가 “제 집 드나들듯 편하게 오라”고 배려하는 다정함에



이선빈(가운데)이 할머니들의 미술수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감동을 받았는지 장난스럽게 “빈 손으로 와도 돼요?”라고 되물으며 웃었다. “서울에서 인천이면 그다지 멀지 않으니 매니저 오빠에게 부탁하려고요. 하하! 고고 2학년 때부터 연예인 하겠다고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와 그동안 (봉사활동들)못한 게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을 기회로 꼭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할머니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과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이선빈은 “다음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끝나면 맛있는 점심도 함께하자”며 친근한 매력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이날 이선빈은 삼성생명과 사회연대은행이 마련한 선물을 할머니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백솔미 기자

나눔의 씨앗이 되는 스타들의 재능기부

목소리부터 손글씨까지 분야 다양
흔돈의 시국…국민 위로의 역할도

상상한 국민의 위로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 ‘길가에 버려지다’는 전인권 이승환 이효리 장필순 신대철 등 약 100명의 가수과 연주자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이들 음악인들은 실연 저작권을 받지 않기로 하고 21일 음악사이트를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어지러운 시국에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려는 의도에서다.

재능기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일컫는다. 연예계 스타들도 각자의 재능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발임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연예계 스타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만큼 그 기부의 분야 역시 다양하다. 또 그 흐름도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

배우 이병헌은 최근 공개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환아 지원 캠페인 ‘하루’ 영상에 목소리를 제공했다. 이병헌은 잔잔한 목소리를 통해 아픈 건환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배우 한지민과 친구, 아이돌 가수 루나(에프엑스), 아이린(레드벨벳), 차은우(아스트로) 등 5인은 세계인들을 위한 한글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단비’에 각자의 손글씨를 제공했다. 사용자들은 스타들의 손글씨를 따라 써보고 실생활에 유용한 한국어 회화를 정취하며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배우 소유진은 1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소’의 시창각장예인을 위한 화면해설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개그우먼 안영미도 최근 한국장애인재단이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다름이 힘이 되는 세상’ 편 녹음물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보이그룹 하이피는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6.25전쟁 호국영웅 합동 회헌’에 축하 가수로 나섰다.

스타들의 재능기부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돌 그룹 유키스와 라붐은 11일 한국아시아우호재단의 주선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현지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도시를 기증하고 콘서트를 벌인 바 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편집 | 곽정일 기자 ico@donga.com

백세시대의 男性建康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쓰면 쓸수록 男性이 **근원적으로** 좋아지는

단전, 회음, 전립선 글로워 운동기!

입부성인기구는 쓰면 쓸수록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지만, 본 운동기는, 미세파동의 **글로워운동**으로 전혀 부작용 없이 쓰면 쓸수록 확실히 건강이 좋아집니다.

확인필수!

100세 시대를 **근원적으로 전강화**하게 하는 ‘단전’ 운동!

— 기(氣) 치료사 루시 리델(英國) —

단전은 예로부터 기의 중심으로 알려져 왔으며, 약간의 운동으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온몸의 주요 내장기능이 집중된 에너지의 근원으로, 오장 육부와 내장기능 강화로 건강도 살아나고, **100세 시대에도** 힘이 넘치는 건강한 체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진정한 남자의 힘은 단전과 전립선에서 나옵니다.

男性근민이 눈 녹듯 사라지는 ‘회음운동’

회음은 정기(精氣)의 급소이며, 전립선 강화운동의 요체이며, 남성호르몬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회음운동으로 전립선과 성기능이 강화되어 남성고민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는 쇠같이 강하고 건강한 인생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회음은 생식기와 항문 사이의 고한 뒤쪽)

20년 이상 사랑받은 인기상품

※본 제품은 의류기가 아닙니다

밤이 즐거워지는 전립선운동!

전립선은 방광 밑에 있는 소변통로 이면서 정액과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중요한 생(腺)입니다. 전립선이 좋아야 소변 발이 시원 시원하게 쏟아지고, 정액도 많아져서 부부생활도 즐거워 집니다. 일시적인 약물이나 기구로는 좋아지기 어려우며 수술을 하면 부부생활은 물 건너 갑니다.

‘글로워’ 운동의 놀라운 위력!

- 부부생활 시에 힘이 강하고 굵고 단단해 진다.
- 지구력이 넘치는 사랑 받는 남성이 된다.
- 쾌변과, 소변 발이 시원하고 힘차게 쏟아 진다.
-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글로워 운동의 과학적인 운동 원리?

현대과학에서는, ‘글로워 운동’을 가장 좋은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촉진법이며,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적극 추천 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미세파동을 받으면, 루제씨 세포에 의하여 수축이 되는 데, 이때는 모세혈관에 하나씩 붙어 있는 ‘글로워’를 통하여 혈액이 몇배로 흐르게 되어 혈액순환이 놀라게 촉진 됩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장기와 세포가 활력이 강해지고, 장기의 기능들이 살아 나서 건강이 놀라게 좋아집니다.

전립선 운동은 사랑 받는 남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글로워 미세파동 전자동 편한 운동! 활용가치 만점!

- 세계유일의 단전, 회음, 전립선, 동시운동
- 1분에 6,000rpm의 기본 좋은 글로워 미세파동
- 착용 간편, 마이컴 제어의 전자동 운동
- 20분 자동운동 후 off, 원적외선 음이온 발생
- 부작용, 전자파 전혀 없음, 토르마린 함유

~ 단전, 회음, 전립선 동시운동 확인필수! ~

출처: KISTI 과학향기, 과학뉴스, 한겨레신문, 니시 건강법, 모판운동

본 운동기구는 일시적인 약이나 기구와 달리 지속적인 쓰셔야 효과적입니다

구입상당

문의 하시면 도서출판 小圖園이 발간한 ‘건강하게 살다!’(64p)책을 무료 우송해 드립니다

출시 20주년 기념 2016년 신모델 판매

국민 462201-01-117339 | 예금주 농협 302-0120-1361-81 | 우경식(이지텍)

(02) 458-9958

EZT. Fore Easy Life E Z Tech. by korea

카드 환영